

# 이상화 시의 본질에 관한 일 고찰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중심으로—

박 민 수\*

## I. 서 론

문학을 연구할 때의 전통적인 접근 태도를 츠베탕 토도로프는 투사(投射, Projection) 주석(註釋, Commentary), 시학(Poetics)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 바 있다.<sup>1)</sup>

오늘날 한국 현대시를 대상으로 한 주요 접근 태도도 이러한 갈래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투사와 주석, 특히 문학 사회학적 접근 태도<sup>2)</sup>와 형식주의적 접근 태도<sup>3)</sup>가 그 주된 흐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 박사과정

- 1) Robert Scholes, *Structualism in Literature*, Yale Univ. Press. 1974, p.143 참조. 이들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투사는 문학 작품을 통해 작가·사회, 또는 역사의 본질이나 사실들을 확인하는 심리학적 문학 사회학적 등의 방법론을 말하고, 주석은 작품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그것에 내재된 의미와 논리를 밝히는 것이며, 시학은 개별 작품들을 통해 드러나는, 문학상의 일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 2) 문학 사회학적 접근 태도는 또한 내적으로 여러 갈래의 구분이 가능하다. (조남현, 「문학 사회학의 수용 양태와 그 문제점」, 『문학과 비평』, 1987, 가을, p.293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 지시하고 있는 문학 사회학적 접근 태도는, 문학 작품을 그 존재성으로부터 지시적 의미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그것을 역사, 현실의 문제와 관련시켜 해석하고자 하는 일련의 사회적 지향적 태도를 포괄한 개념으로서이다.
- 3) 본고가 ‘형식주의적’이란 말을 통해 나타내하고자 하는 것은, 작품 그 자체

문학 사회학적 접근 태도는 문학 작품을 한 개인에 의해 창조된 ‘사회적 사실의 하나’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형식주의적 접근 태도는 문학 작품을 문학성에 의해 규정되는 ‘자율적이고 다의적인 구조물’의 하나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한국 현대시 연구의 주된 흐름을 차지하는 이상의 두 접근 태도에 있어 전자는 대체로, “문학 작품의 독자적인 성격을 부정하고, 그것을 그것 밖에 존재하는 법칙들, 심리라든가 사회 또 혹은 <인간 정신>등에 관한 법칙들의 발현으로 간주”<sup>4)</sup>함으로써 시의 본질적 존재성이 무시되는 오류가 지적된다. 후자도 마찬가지로 그 오류가 지적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시 작품 하나하나를 “완전히 폐쇄된 체계(closed system)”<sup>5)</sup>로 인식함으로써 “연구된 자료의 한계조차도 지적할 수 없고, 혹은 이들 중의 어떤 국면이 미학적 의미가 있는지조차 말할 수 없게”<sup>6)</sup>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한 편의 시는 “<사회적 사실>임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다의적인 구조물”<sup>7)</sup>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는 일차적으로는 개인적 서정을 바탕으로 출발하지만, 그 순수한 개인적 서정이 때때로 시대적·역사적·문화적 배경과 맺는 상호 관계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보편성이 인정되기에 이를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시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 보편성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때로는 전혀 그 보편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한 편의 시가 ‘사회적 사실’로 해석될 가능성은 부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때, 한 편의 시가 사회적 사실로서의 보편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론 그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증거의 1차적인 것은 당연히 작품 자체가 지닌 구조적 조건이며, 다음으로는 그 조건이 일정한 시대·역사·문화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룩해 내는 관계 양상이다. 전자는

---

의 내재적 존재성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일련의 접근 태도를 포괄한 개념으로서이다.

4) 츠베탕 토도로프, 『구조시학』, 박광수 역, 문학과 지성사, 1978, p. 18.

5) Robert Scholes, op. cit., p. 11.

6) 바흐첸, 「생활속의 담론과 시속의 담론」, 츠베탕 토도로프, 『바흐첸 : 문학 사회학과 대화이론』, 최현무 역, 도서출판 까치, 1987, p. 163.

7) 피에르 지마, 『문학 텍스트의 사회학을 위하여』, 이진우 역, 문학과 지성사, 1983, p. 162 참조.

작품의 ‘구조 분석’을 통해 그 제시가 가능하고, 후자는 선행된 분석 내용을 텍스트 상호간이나 시대 현상 등의 외재적 차원과 관련지어 적절한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리하여, 한 작품 또는 한 시인의 모든 작품에 대한 ‘구조 분석’과 ‘관계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형식주의적 접근 태도나 문학 사회학적 접근 태도가 개별적으로 남기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시의 본질이 보다 총체적으로 규명될 가능성이 주어진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토대로 본고가 선택한 텍스트는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이상과 같은 발전적 접근을 통해 결국 개별 작품들이 지닌 존재성과 그 상호관련성에 의한 의미작용에 대한 새로운 해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접근 방법론에 대한 선행된 해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II장을 통해 이러한 방법론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II. 연구의 방법—구조 분석과 관계 해석의 논리

시를 구조 분석하고 그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시의 새로운 본질을 해명하고자 할 때, 여기에는 적절한 방법론적 논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를 구조 분석과 관계 해석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구조 분석의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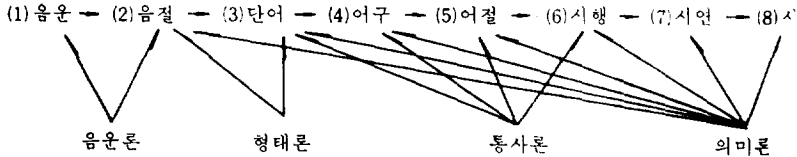
한편의 시의 분석 단위는 텍스트(text)<sup>8)</sup>이다. 이때 텍스트는 의미론적 개별 단위로서, 자율적 의미 작용(Significance)<sup>9)</sup>을 이룩하는 ‘닫힌 실재(closed entity)’<sup>10)</sup>이다. 닫힌 실재로서의 시 텍스트는, 구조적 사유

8) 텍스트는 리파테르에 의하면 ‘전체로서 하나의 의미 작용을 하는 단위’(Michael Riffaterre, *Semiotic of Poetry*, Indian Univ. Press, 1978, p. 3)이며, 움베르토 에코에 의하면 ‘특성의 생성 규칙이 지배하는 거시 단위’(『기호학 이론』, 서우석역, 문학과 지성사, 1985, p. 21)이다.

9) 시의 부분 요소들이 시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이룩해 내는 통일적 의미 내용(Michael Riffaterre, op. cit., p. 2 참조)

10) Ibid., p. 2.

를 통해 볼 때, 그것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상호 관계에 의해 성립된다. 시에 있어 이러한 상호 관계를 이룩하는 요소들은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언어학적 국면으로 세분될 수 있다.<sup>11)</sup>



〔도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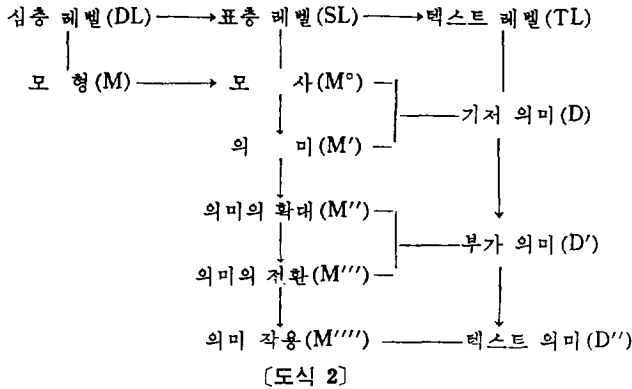
결국, 이상의 [도식 1]에서와 같이 한 편의 시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각 국면이 하나의 지시적 ‘관계의 망(network of relationships)’을 이룩함으로써 자율적 총체로서의 시적 완결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각 국면이 구체적으로 구조 분석의 대상이 되며<sup>12)</sup>, 나아가서 관계 해석의 1차적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상의 개별적 국면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상적 언술의 부분적 국면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변별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개별적 국면들이 어떻게 시적 의미 작용의 텍스트 단위로 존재하게 되는가의 양상이 고려되어야만 이들 각 국면들이 차지하는 시적 구조내에서의 의미나 기능이 바르게 확인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히 일상적 언술로부터 시적 언술로의 가능한 변이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sup>13)</sup>

11) 이승훈, 『이상 시 연구』, 고려원, 1987.8, p.146.

12) 김화영편역, 『프랑스 현대비평의 이해』, 민음사, 1984, p.75 참조.

13) 여기에서의 도식은 주로 리파테르의 용어와 개념을 원용하여 구성한 것인데, 주요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형(母型, matrix) : 시적 텍스트 산출의 기저가 되는 최초의 축어적(literal) 문장이나 단어. (Michael Riffaterre, op. cit., p.19)
- 모사(模寫, mimesis) : 객관적 실재(reality)의 언어적 재현. 시의 표면적 층위를 형성하며, 이러한 표면적 층위가 구조 속에서 의미 작용의 층위로 바뀐다. (Ibid., p.2 참조)
- 의미(meaning) : 모사의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시적 관련 내용. (Ibid., pp.2~3 참조)



이상의 도식을 통해 볼 때, 한 편의 시는 (DL)→(SL)→(TL)과 (D)→(D')→(D'')와 같은 표면적 전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 과정 역시 일상적 언술과의 변별이 불가능하다. 결국 시적 언술로의 변이는 (M)→(M°)→(M')→(M'')→(M''')→(M''''')와 같은 전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식 2]의 각 차원들이 음성, 의미 등의 구조적 층위를 형성하게 되며, 동시에 은유, 환유, 상징 등의 내재적 존재 원리가 발생되기도 한다.

시의 구조 분석은 따라서, [도식 2]의 (M)~(M''''')의 관계를 기초로, [도식 1]에 표시된 각 국면들이 드러내는 관계의 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국면들의 내적 관계에 대한 해명으로서의 구조 분석은 또한 거기에 알맞는 논리적 도구가 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세부적인 면에 대하여는 주조를 분석하는 자리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 2. 관계 해석의 논리

시의 부분적 관계 요소를 몇 개의 언어적 국면으로 세분한 [도식 1]에

- 의미의 확대(expansion) : 모형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구조내의 보다 복잡한 시적 의미로 바꾸어 나가는 일. (Ibid., pp. 48~53)
- 의미의 전환(conversion) : 서로 다른 의미(meaning)의 구성 요소들을 텍스트내에서 같은 의미의 계열로 바꿈으로써 모형 문장의 구성 요소를 새로운 의미 단위로 성립시키는 일. (Ibid., p. 63)

서의 분절(articulation)<sup>14)</sup>과 [도식 2]의 논리 체시는 ‘관계 해석’을 위한 구체적 단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때의 관계 해석이란, 하나의 텍스트 내부의 부분적 요소간의 관계에 대한 해명일 수도 있고, 텍스트 내부의 어떤 부분적 요소와 텍스트 외적인 다른 요소와의 관계에 대한 해명일 수도 있다. 전자는 결국 형식주의적 접근 태도에 의한 관계 해명이요, 후자는 문학 사회학적인 접근 태도에 의한 관계 해명이다.

본고가 ‘구조 분석’과 ‘관계 해석’을 동시에 문제삼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각각의 접근 태도가 지닌 한계성 극복을 위해서이다. [도식 1]과 [도식 2]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적 의미 작용의 단위로서의 텍스트는 그 자체의 내재적 원리를 통해 단순한 모사(mimesis)나 의미(meaning)의 층위를 벗어난다. 이 때 문학 사회학적 접근 태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러한 내재적 원리를 소홀히함으로써 단순히 모사나 의미의 층위에서 그 해석의 단서를 찾고자 한다는 점이다. 또한, 형식주의적 접근 태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개별적 텍스트의 한계 내에서만 관계 해석을 함으로써 그것이 텍스트 외적인 요소와의 관계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거나, 또는 새로운 의미 작용으로 상승될 수 있는 가능성의 통로를 차단 한다는 점이다. 결국, 하나의 텍스트는, 형식주의적 해석으로부터 문학 사회학적 해석으로 점진적 해석이 이행되는, “부분과 전체”<sup>15)</sup>의 관계에 의한 총체적 이해를 통해서만 그 본질이 분명해질 수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분석된 구조적 조건을 외재적 차원과 어떻게 관련시키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관계 해석’이란 말은 주로 분석된 구조적 조건을 외재적 차원과 관련시키는 방법론적 측면을 위해 사용된다. 분석된 구조적 조건을 외재적 차원과 관련시키는 관계 해석으로서의 이러한 방법론은 또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① 개별 작품의 분절적 각 국면, 즉 [도식 1]에서의 음운론적 국면, 형태론적 국면, 통사론적 국면, 의미론적 국면들을 [도식 2]의 토대 위

14) 각각의 국면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 마디나눔을 하는 일, 또는 그 마디나눔. (J. 구르베, 『기호학입문』, 오원교역, 신아사, 1986, p.237 참조)

15) ‘부분과 전체’는, 단일한 작품의 구조 요소로서의 부분과 그것들이 이룩하는 구조적 의미 단위로서의 전체와의 관계로서도 이해될 수 있고, 계열체로서의 부분과 그것을 개별 단위로 거느리는 통합체로서의 전체와의 관계로

에서 분석하고, 그 분석 내용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일정한 외재적 차원<sup>16)</sup>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이때의 해석은 개별 작품의 구조 분석 내용에 한정되므로 당연히, 그 보편성으로의 접근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

② 개별 작품의 본질적 국면은 다시 동일 시인의 다른 작품, 또는 다른 시인의 다른 작품의 본질적 국면과 관련됨으로써 그 성질에 따라 국면 단위의, 나아가서 작품, 또는 시인 단위의 계열체(paradigm)<sup>17)</sup>가 성립된다. 이들 계열체를 단위로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결국, 개별 작품이 시대적·역사적·문화적 총체성과 이룩하는 관계 또는 의미 내용이 보다 객관적인 보편성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개별 작품은 그 관계 또는 의미 내용의 이해를 위한 도구로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등가(equivalence)의 관계에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③ 작품의 본질적 국면을 기초로 관계를 해석하고자 할 때, 그 국면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선택에 의한 해석도 전체와의 관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단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선택되어 종합됨으로써, 또는 그 선택된 개별적인 것만으로 외재적 차원과의 관계 해명이 가능한 것이다.

### Ⅲ. 구조 분석

시 텍스트를 구조 분석하는 일반적 논리에 관하여는 앞장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텍스트를 구조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앞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기에 수반되는 '적절한 분석적 도구'가 선택되어야 하며, 아울러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본질적 국면, 즉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계국면 중 어느 한 국면이나 몇 개의 국면이 동시에 구체적 분석 대상으로 선택될 수가 있다.

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때, 부분과 전체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등가(equivalence)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 16) '외재적 차원'은 분석 국면을 직접 관련시키고자 하는 외적 세계를 말한다.
- 17) 여기에서 계열체란, 변별성을 가진 문학적·문화적 단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여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Victor Erlich, 러시아 형식주의, 박거용역, 문학과 지성사, 1985, p.173~174 참조)

본고는, 이미 밝힌 바대로, 구조 분석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외재적 차원과 이룩하게 되는 관계의 해석에 이르기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하나의 작품을 통한 외재적 차원과외의 관계 해석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의미론적 국면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이때 의미론적 국면이란 실상 형태론적 국면, 통사론적 국면을 포괄하는 국면이며, 이러한 국면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 구조가 확인되게 된다. 여기에 상대되는 국면이 음운론적 국면이며, 그 음운론적 국면의 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음성 구조가 확인될 수 있는데, 본고는 일단 이러한 측면에의 분석은 문제 삼고자 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선택되는 '적절한 분석적 도구'는 대체로 [도식 2]에 제시된 논리와<sup>18)</sup> 그 용어 개념이다.

### 1. <나의 침실로>의 구조 분석<sup>19)</sup>

모든 시는, [도식 2]의 이론 체제에 의할 때, 모형(M)→모사(M°)→의

- 
- 18) [도식 2]에서 제시한 리파베르의 논리와 용어(M~M''')는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독서 단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M은 시를 암송한 기저의 미 총위로서 이해의 출발점이 되며, M°→M'은 1 단계의 발전적 독서(heuristic reading)에 의한 표면적 의미 해석의 총위이며, M''→M'''은 2 단계의 소급적 독서(retroactive reading)에 의한 구조적 의미 해석의 텍스트 단위 총위이다.
- 19) 여기에서 사용되는 <나의 침실로>의 텍스트는, 「백조」 3호(1923.9)에 수록된 것이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 논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김용직, 「<의도의 오류>와 <의도비명>」, 『국문학논집』 5, 6 합집, 단국대학교 국문학회, 1972.
- 김윤식, 「1920년대 시장르의 선택 조건」, 『한국 현대 시론 비판』, 일지사, 1980.
- 김학동, 「상화 이상화론」, 『한국 근대 시인 연구(1)』, 일조각, 1981.
- 문덕수, 「이상화론」, 『월간문학』, 1969. 6.
- 오세영, 「어두운 빛의 미학」, 신동욱편 『이상화의 서정시와 그 아름다움』, 새문사, 1981.
- 이기철, 「<나의 침실로>의 구조」, 『영남어문학』 제 7집, 영남어문학회, 1980.
- 이성교, 「이상화 연구」, 『연구 논문집』 제 2집,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1969.
- 정한모, 「이상화의 시와 그 문학사적 의의」, 신동욱편, op. cit.



미(M')→의미의 확대(M'')→의미의 전환(M''')과 같은 과정을 거쳐 텍스트 단위로서의 의미 작용(M''')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모형(M)을 근거로 하여 한 편의 시가 완결되고, 그 완결된 시는 현실의 재현(representation)인 모사(M°)의 층위에서 일차적인 의미(M') 해석이 가능하고, 그것을 토대로 의미의 확대(M''), 의미의 전환(M'''), 의미 작용(M''')에 이르는 이차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sup>20)</sup>

〈나의 침실로〉의 모형은 '내(퍼소나)가, 밤이 가고 새벽이 오는 시점에서 마돈나를 침실로 부름'이다. 따라서, 이 시는 일차적으로 '나와 밤과 새벽과 마돈나와 침실'이 표면적으로 이룩하는 층위(M°)에서의 의미(M')로부터 출발한다. 결국 '나(퍼소나)', '밤', '새벽', '마돈나', '침실'이 〈나의 침실로〉를 이루는 지배적 구조 요소들이고, 이들이 구조 내에서 이룩하는 관계에 의해 〈나의 침실로〉의 의미 작용은 새롭게 정립된다. 따라서 〈나의 침실로〉의 구조적 중심을 이루는 이들 다섯개의 지배적 요소들의 의미 전개 과정, 즉 M°~M''''의 과정을 살핌으로써 그 의미론적 본질이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들 다섯개의 중심 요소들이 전체 구조 속에서 이룩하는 M°~M''''의 관계에 대하여는 그러나, 필자의 「〈나의 침실로〉의 구조와 상상력」<sup>21)</sup>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으므로 본고를 통해서만 그 논의를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이들 다섯개의 중심 요소들이 상호 작용을 통해 드러내는 텍스트 단위의 의미 내용을 종합적으로 도식화해 보이면 다음 [도식 3]과 같다.

이상 [도식 3]에서, M→M''''로의 전개는 '나+밤+새벽+마돈나+침실'과 같은 결합 관계에 의한 부분 요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이다. 결국 〈나의 침실로〉는 의미 확대와 의미 전환의 복잡한 상호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조적 특성을 가진 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에 대한 외재적 차원과 관련된 해석은 1차적으로, 이러한 부분 요소들의 복잡한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미 작용(M''')의 내용을 기점으로

조동민, 「어둠의 미학」, 『현대문학』, 1979. 8.

조창한, 「환상적 관능미의 추구」, 정한모·김재홍편, 『한국 대표시 평설』, 문학세계사, 1983.

20) 주 18) 참조

21) 『심상』, 1986. 10~11. 『비평문학』 창간호, 비평문학연구회, 1987, 재수록

모형 (M)	중심 구조 요소 (M <sup>o</sup> )	의미 (M')	의미의 확대 (M'')	의미의 전환 (M''')	의미 작용 (M''''')
내가, 밤이 가고 새벽이 오는 시점에서 마돈나를 칩실로 부름	나 (퍼소나)	마돈나를 칩실로 부르는 '남자'	① 새벽을 두려워하는 존재로서의 남자 ② 칩실에 이르고자 애타게 마돈나를 부르는 연약한 생명체로서의 남자 ③ 마돈나가 오지 않아 절망하는 남자	① 신적 존재 ② 현실 초월의 불가능 앞에서 전망하는 존재	유한한 현실적 생명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 공간에 이르러, 그 절대 조건인 여성상으로서의 마돈나를 부르나 끝내 오지 않아 절망함
	밤	어두움의 공간	① 피곤한 잔치마당 ② 새벽에 의해 끝나는 공간	① 삶의 공간 ② 유한한 생명 공간 ③ 허부의 공간	
	새벽	밝음의 공간	① 내(퍼소나)가 두려워하는 공간 ② 내가 피하고 싶은 공간	죽음의 공간	
	마돈나	① 귀부인 ② 성모 마리아	① 별—유한한 생명 ② 아씨—반쯤을 받는 여인 ③ 너—친근한 여자, 애인 ④ 마리아—성스러운 여인	① 영원한 여인상 ② 영원한 생명의 절대 조건	
	칩실	잠을 자는 일상을 상징적 공간	현실 저쪽에 있는 초월적 공간	① 새로운 생명의 장소 ② 영원한 생명 공간	

[도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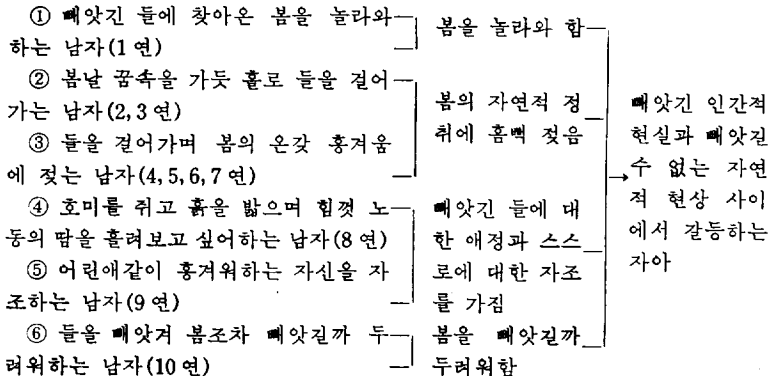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나의 침실로>의 해석 기준을  $M \rightarrow M'$ 의 수준에 둬으로써, 그 해석상의 오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22)</sup>

2.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구조 분석<sup>23)</sup>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모형은 ‘봄날 빼앗긴 들을 밟으며 봄마저 빼앗길까 두려워함’이다. 따라서 이 시는 그 모형의 중심 요소인 ‘나(퍼소나)와 봄과 빼앗긴 들’을 지배소(dominant)로 삼아 구조적 의미 작용( $M'''$ )을 이루하는 시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들 세 요소들의 구조내에서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개별적 요소들이 구조 속에서 이루하는  $M^0 \sim M'''$ 의 관계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가. 나(퍼소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퍼소나로서의 ‘나’는  $M^0 \rightarrow M'$ 의 총위, 즉 모사와 의미의 총위에서 볼 때, ‘봄날 빼앗긴 들에 나온 남자’인데, 다음과 같이 확대 전환된 통사적 구조 요소들과 그 관계에 의해 본질적 존재성을 드러내게 된다.



22) 박민수, 『비평문학』, Ibid., pp.93~9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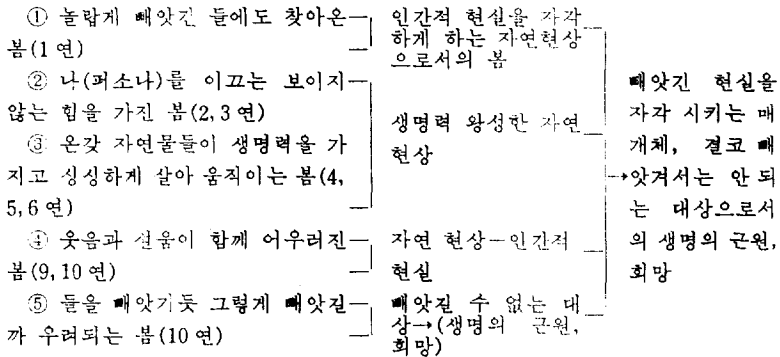
23) 여기에 사용된 텍스트는, 『개벽』 70호(1926, 6)에 수록된 10연의 작품이며, 이에 대한 주요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용직, 「식민지 시대의 창조적 감각」, 신동욱편, 『이상화의 서정시와 그

이상에서, ‘나(퍼소나)’는 확대와 전환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주로 그 태도와 감정을 통해, 구조 내에서의 본질적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음이 보인다. 결국, ‘봄날 빼앗긴 들에 나온 남자’로서의 ‘나’는 구조 속에서 ‘빼앗긴 들에 찾아온 봄을 맞아 빼앗긴 인간적 현실과 빼앗길 수 없는 자연적 현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아’로 발전한다. 이때, 이 시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관련하여 자아를 어떤 자아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 다시 말하면, 다음 다항 ‘빼앗긴 들’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자아를 민족적 자아로 볼 것인가, 계급적 자아로 볼 것인가의 해명이 남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에 대한 이러한 해명이 구조내의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의 IV장 ‘관계 해석’에서 다시 문제삼게 될 것이다.

나. 봄

봄은 M°→M’의 층위에서 볼 때, ‘빼앗긴 들에 찾아온 봄’인데, 역시 다음과 같이 확대·전환된 통사적 구조 요소들과 그 관계에 의해 본질적 존재성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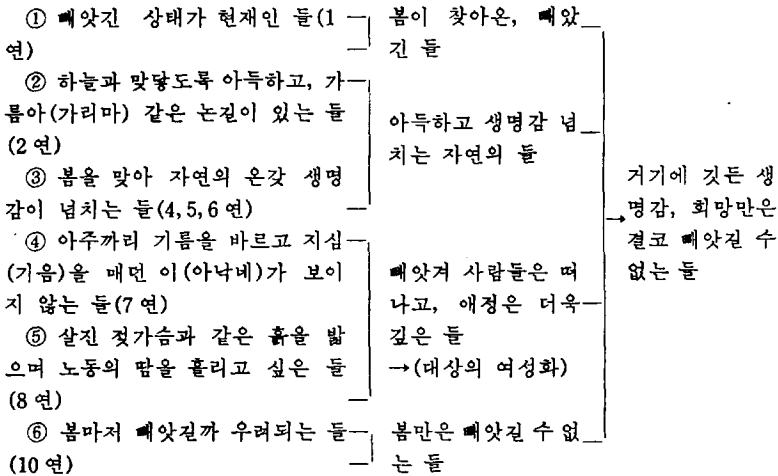
아름다움, 새문사, 1981.  
 문덕수,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김용직·박철희편, 『한국 현대시 작품론』, 문장, 1981.  
 신동욱,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울격미』, 신동욱편, op. cit.  
 이상섭, 『자연 심상으로 걸려낸 식민 현실』, 『문학사상』, 1986. 6.  
 정효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구조 시학적 분석』, 『판악어문연구』 제10집, 1985.

이상에서 볼 때, ‘봄’도 ‘나’(퍼소나)와 마찬가지로 확대와 전환의 과정을 통해 구조 내에서의 본질적 존재성을 새롭게 드러내고 있음이 보인다. 결국, ‘빼앗긴 들에 찾아온 봄’은 구조내에서 곧 ‘인간적 현실, 곧 ‘들의 빼앗김의 아픔’을 자각시키는 매개체이며, 동시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의 근원, 희망으로서의 대상’이다.

봄은 실제로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계절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누구도 소유할 수 있고, 누구도 즐길 수 있는 계절의 하나인 봄이, 그 생명력을 내리는 ‘들’의 빼앗김으로 인해, 주어진 조건을 달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소유할 수 있고 누구도 즐길 수 있는 계절로서의 봄이 누구에게가 빼앗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대상이 된 것이다. ‘빼앗긴 들’로서의 인간적 현실과 계절의 하나로서의 자연적 현상간의 이러한 갈등은 곧 시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을 통해 미묘한 효과의 아이러니로서 표현되고 있다. 결국, 이 시의 전체를 단단히 떠받치고 있는 내적 텍션은 바로 이러한 아이러니를 기반으로 한 데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다. 빼앗긴 들

‘빼앗긴 들’은  $M^0 \rightarrow M^1$ 의 층위에서 볼 때, ‘소유권을 남에게 약탈당한 땅’인데 또한 다음과 같은 통사적 구조 맥락과 그 관계에 의해, 그



것의 의미 작용에 참여하는 본질적 존재성이 성립된다.

이상에서 볼 때,  $M^0 \rightarrow M'$  층위에서의 ‘빼앗긴 들’은 곧 ‘비록 빼앗긴 상태이지만, 거기에 대한 애정과 거기에 갖든 생명감, 희망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들’로 확대, 전환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또한 남는 문제는, ‘빼앗긴 들’이 가진 상징성에 관한 규명이다. 다시 말하면, ‘빼앗긴 들’이란 ‘누가 누구에게서 빼앗긴 어떠한 들’인가가 규명됨으로써 이 시의 본질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빼앗긴 들’을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가능한 그 의미 내용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소작농이 지주로부터 그 소작의 권리를 박탈당한 소작지(농토)로서의 들
- ② 지주가 어떤 힘에 의해 그 소유권을 잃은 경작지(농토)로서의 들
- ③ 일제에 빼앗긴 국토(조국)로서의 들

이상의 가능한 의미 내용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성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의미 내용의 어떤 것과 이 시가 맥이 닿느냐에 따라 이 시의 피소나는 민족적 자아가 될 수도 있고 계급적 자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앞의 가항 ‘나(피소나)’에서 언급한 바처럼, 구조내의 증거만으로는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이 문제에 대하여도 다음의 IV장 ‘관계 해석’에서 다시 문제삼게 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구조적 중심 요소인 ‘나(피소나)’, ‘봄’, ‘빼앗긴 들’이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룩해 내는 텍스트 단위의 의미 내용을 종합적으로 도식화 해 보이면 다음 [도식 4]와 같다.

이상 [도식 4]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나(피소나)’, ‘봄’, ‘빼앗긴 들’을 지배소로 삼아, 그것들의 결합 관계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적 의미 맥락의 틀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그 모형(M)과 의미 작용(M'') 사이의 거리가 <나의 침실로>에서처럼 그렇게 먼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다시 말하면, 이 시는 모사 층위( $M^0$ )의 의미 내용으로서 이미 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의미 작용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기교적 장치가 단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앞의 가항과 다항에서 논의된

모형 (M)	중심 구조 요소 (M <sup>o</sup> )	의미 (M')	의미의 확대 (M'')	의미의 전환 (M''')	의미 작용 (M''''')
봄날 빼앗긴 들을 밟으며 봄마저 빼앗길까 두려움	나(피소나)	봄날 빼앗긴 들에 나온 남자	① 봄을 놀라와 함 ② 봄의 자연적 정취에 흠뻑 젖음 ③ 빼앗긴 들에 대한 애정과 스스로에 대한 자조를 가짐 ④ 봄을 빼앗길까 두려워 함	빼앗긴 인간적 현실과 빼앗길 수 없는 자연적 현상(생명의 근원,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아	봄날, 빼앗긴 들을 밟으며, 빼앗긴 인간적 현실과 자연적 현상 사이에서의 갈등을 통해, 마지막 생명감, 희망마저 빼앗길까 두려움
	봄	빼앗긴 들에 찾아온 봄	① 자연적 현상을 인간적 현실에 대비 ② 생명력 왕성한 자연 현상 ③ 자연 현상+인간적 현실 ④ 빼앗길 수 없는 대상	빼앗긴 현실을 자각 시키는 매개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생명감, 희망으로서의 대상	
	빼앗긴 들	소유권을 남에게 약탈당한 땅	① 봄이 찾아온 빼앗긴 들 ② 아득하고 생명감 넘치는 자연의 들 ③ 빼앗겨 사람들은 떠나고, 애정은 더욱 깊은 들 ④ 봄만은 빼앗길 수 없는 들	거기에 깃든 생명감, 희망만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들	

[도식 4]

바와 같이, 구조내의 증거를 통해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남는데, 이것은 문화적·역사적 배경, 또는 텍스트 사이의 상호 관계를 통해 적절히

해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따라서 '관계 해석'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 IV. 관계 해석

지금까지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구조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구조 분석은 어디까지나 내재적 증거(internal evidence)<sup>24)</sup>에 의존한 것으로, 그러나 그 자체의 증거만으로는 총체적 본질이 충분히 드러날 수 없는 많은 미해결의 부분을 남기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다시 앞 II장 '관계 해석의 논리'에서 밝힌 방법에 의해 관계 해석함으로써, 작품 자체가 지닌 본질의 새로운 규명은 물론 그것이 시대적·역사적·문화적 배경과 어떠한 등가 관계의 위치에 놓이는지도 확인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성격상 다음과 같은 차례와 한계 속에서 그 관계 해석의 범주를 제한하기로 한다.

①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상기한 구조 분석 내용을 토대로 그것이 외재적 차원과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는 방향성 검토

②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구조 분석 내용을 토대로, 그것들이 텍스트 상호 관계를 통해 이룩해 내는 의미 작용 내용의 해석.<sup>25)</sup>

##### 1. 외재적 차원과 관계 해석

가. <나의 침실로>와 관계 해석의 방향성

앞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나의 침실로>는 “유한한 현세적 생명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 공간에 이르고자, 그 절대 조건인 여성상으로서의 마돈나를 부르나 끝내 오지 않아 절망”(『도식 3』)하는 의미 작용의 구조로서 규정된다. 이것은 한 여성을 침실로 부르는 모형 구조가 그 표면적 의미(M')로부터 새로운 형이상학적 의미 작용의 구조로 변

24) W.K. Wimsatt, JR., and M.C. Beardsley, *The verbal Icon*, univ. of kentucky press. 1954, p. 10.

25) 츠베탕 토도로프, 『구조시학』, 팍광수역, 문학과 지성사, 1978, p. 119 참조.



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침실로>는 그 모형 구조의 표면적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 작용의 구조를 기초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의미 구조를 좀더 추상화하면 ‘① 유한한 생명 공간의 초월 욕구→② 불가능의 인식→③ 갈등’<sup>26)</sup>의 관계가 된다. 여기에서 ①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②는 현실적인 것이다. 또한 ③은 비현실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의 대립에 의해 빚어지는 결과이다. 이러한 추상화를 좀더 자세히 관찰하면 ①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관련되는 것이고, ②는 그것의 불가능을 인식하는 비기독교적 세계관과 관련된다.<sup>27)</sup> 결국 ③의 갈등은 확고하게 선택할 수 없는, 또는 스스로 소유할 수 없는 세계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나의 침실로>의 구조적 의미 내용을 추상화해 볼 때, 이 시는 순수한 개인적 서정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 문제의 보편성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어찌서 시인이 이러한 세계관의 문제로 갈등하는가, 또 이 갈등은 그 시대, 역사, 문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해석함으로써, <나의 침실로>가 지닌 사회적 보편성으로서의 본질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대, 역사, 문화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고를 통해서만 그 방향성을 지적하는 데 머무르고자 한다.

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관계 해석의 방향성

앞에서 구조 분석한 내용을 따를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봄날, 빼앗긴 들을 밟으며 빼앗긴 인간적 현실과 자연적 현상 사이에서의 갈등을 통해, 마지막 생명감·희망마저 빼앗길까 두려움(〔도식 4〕)”의 의미 작용의 구조로서 규정된다. 여기에서, 모형 구조의 개인적 정서 차원으로부터 의미 작용 구조의 사회적·공적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확대·전이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 작용의 구조를 좀더 추상화하면, ‘① 빼앗긴 현실→② 빼앗길 수 없는 현실→③ 갈등’이다. 여기에서 ①은 서정적 자아가 처해 있는 인간적 현실이고, ②는 그 인간적 현실을 더욱 강하게 깨닫게 만드는 매개체로서의 자연적 현실이다. 따라서 ③은 이러한 두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며, 이로부터 약탈자에

26) 박민수, op. cit., p. 108 참조.

27) 박민수, 「<나의 침실로>의 구조 분석」, 『심상』, 1987. 7, pp. 104~105 참조.

대한 저항적 심리의 내면성이 엿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①의 ‘빼앗긴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앞의 구조 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은 구조 자체의 증거만으로는 해석하기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다음 2항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결국 이 부분의 해석으로부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지닌 사회적 보편성이 좀더 구체적으로 해명될 것으로 본다.

## 2. 텍스트 상호 작용과 관계 해석

다음은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두 작품을 대상으로, 이들 텍스트가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들 텍스트가 새롭게 획득하는 의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텍스트의 상호 관계는 우선 ① 동형성(isomorphise)<sup>28)</sup>에 의한 측면과 ② 변별성에 의한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동형성이나 변별성은 [도식 1]에서 보인 언어학적 국면, 또는 [도식 2]에서 보인 세계의 레벨, 즉 심층레벨, 표층 레벨, 텍스트 레벨을 각각의 차원에서 대비시킴으로써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동형성에 의한 관계 해석

본고에서의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대한 구조 분석은 의미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의미론적 측면에서 이 두 작품이 어떠한 동형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다.

<나의 침실로>는, 위의 구조 분석과 관계 해석의 방향성 검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한한 생명 공간의 초월 욕구→불가능의 인식→갈등’과 같은 텍스트 단위의 의미 구조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의미 구조를 좀더 추상화하면, ‘비현실적인 것(욕구)+현실적인 것(불가능, 좌절)→갈등’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시의 표면 구조를 가능하게 한 시적 랑크(langue)로서의 근원적 내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

28) J. 푸르베, op. cit., p.240 참조.

런데 이러한 내면 구조는 형이상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차원의 보편성을 갖는 것으로, 시인이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문제를 시적 상상력의 내용으로 삼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빼앗긴 현실→빼앗길 수 없는 현실→갈등’과 같은 텍스트 단위의 의미 구조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의미 구조를 좀더 추상화하면 ‘현실적인 것(결망, 좌절)+비현실적인 것(욕구)→갈등’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 시의 표면 구조를 가능하게 한 시적 랑그로서의 내면 구조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욕구+좌절→갈등’이라는 동형성의 내면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욕구란, 다시 말하자면 ‘선택하고자 하는 삶의 내용’이며, 좌절이란 그것의 ‘불가능’이다. 여기에서, 이 두 시가 이상화 시의 본질적 근원성을 가진 계열체의 하나로서 결합됨이 확인된다. 이처럼 두 시가 하나의 계열체를 이룰 때, 이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그것이 지닌 의미론적 존재성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작용은 곧 구조 분석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데, 가령,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있어서의 ‘자아’와 ‘빼앗긴 들’의 차원이, 곧 당시의 민족적 현실과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다.<sup>29)</sup> 또한, 이들 두 시가 하나의 계열체를 이룸으로써, 이들 두 시가 1920년대라고 하는 역사적·시대적 차원의 ‘전체’와 어떠한 등가 관계의 ‘부분’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으로서의 해석은 1920년대에 대한 세계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본고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 나. 변별성에 의한 관계 해석

변별성(辨別性)이란, 동형성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원용한 말이다. 두 시를 대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첫째 이 두 시가 어떤 국면에서

29) 이러한 단정적 해석에 이르기에는 두 작품만의 관계 해석으로서는 그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인정된다. 이것은 당연히 더 많은 작품, 나아가서는 작가의 전기적 측면 사회적 현실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동형성을 가지면서 다른 어떤 국면에서는 변별성을 가지는 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달리는, 어떤 국면에서든 동형성을 발견할 수 없는 순수한 대립의 관계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상술한 바와 같이, 텍스트 단위의 의미 구조를 추상화한 내면 구조, 즉 시적 랑그의 측면에서 동형성을 가진 것이었다. 이러한 동형성은 당연히 표면 구조, 즉, 시적 빠롤(Parole)의 측면에서 변별성을 드러낼 수 밖에 없는데, 의미론적 측면에서 그 주된 것을 요약하면, ‘전자는 추상적·형이상학적 개념의 인간 문제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후자는 보다 역사적·사실적 개념의 현실 문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의미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 ‘동형성’과 ‘변별성’에 의한 관계 해석의 결과,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그 추상적인 의미 구조, 즉 랑그의 측면에서 동일성을 가지며, 그 표면구조, 즉 빠롤의 측면에서 변별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두 시는 같은 랑그를 근거로 한 개별적 변이체(Variant)로서 인식될 수 있으며, 이것은 추상적·형이상학적 상상력으로부터 보다 현실적·사실적인 상상력으로 전이되어간 시적 궤적이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 V. 결 론

이상에서 본고는, 시의 구조 분석과 관계 해석이라는 문제를 두고,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대상으로 그 시론적(試論的)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무엇보다도, 시를 시 그 자체로 인식하면서 그것이 지닌 보다 차원 높은 보편성 내지는 그것이 외재적 차원과 관련되는 측면 또는 그 판계를, 구체적 증거를 통해 찾아내고 해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결국,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시적 랑그의 측면에서 동형성을 가짐으로써 하나의 계열체로 성립됨을 확인하였는데, 계열체로서의 이 두 시가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세계와 관련되느냐의 문제가 실상 구체적으로 천착되지 못하였다는 데에 본고의 한계가 노정된다. 그러나, 본고가 ‘구조 분석’과 ‘관계 해석’을 동시에 문제삼음으로써 개별 작품만으로 해석될 때

의 의미 작용상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은, 이러한 면에서의 좀더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의도한 바가 충분히 천착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논리가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음이 인정된다. 앞으로, 좀더 본격적인 논리 확보를 통해 이러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면서, 아울러 그 적용의 범위를 넓혀 나감으로써 한국 현대시 해석의 또 다른 가능성의 문을 열어나가하고자 한다. ■